

## 건축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2004. 10. 26)

건축구조설계기준(KBCS)(안) 마련. 건축구조설계기준(안)이 2004. 10. 26. 입법예고 되었다. 2005년 1월5일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 중이며 건교부 건축과 담당자에 의하면 2005년 3월 이전에는 공포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음은 해당 기준(안)의 머리말 부분을 요약한 것으로 이 법안에 대해 잘 소개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준(영어명칭, Korea Building Code-Structural 약어로 KBCS)이 마련되었다. 이는 기왕의 KBC내의 구조편을 근간으로 하고 독립된 별도의 구성체계를 갖추어 각종 기준의 내용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훈령 및 고시로 운영되었던 각종 구조설계기준의 지나친 세분화와 법적근거의 미약성을 개선하고 건축기술발전에 따른 신속한 수용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규칙 및 기준을 개정하는 건설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제정한 기준이다.

이 건축구조기준의 제정을 위한 사전의 연구로 구조분야는 물론 화재안전 및 환경설비분야의 기준 등을 망라한 한국건축표준설계기준(안, Korean Building Code, KBC)이 건설교통부의 연구위탁으로 지난 1999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3년에 걸친 연구 끝에 완성이 된 바 있다.

이 건축구조기준의 구성은 제1장 총칙, 제2장 구조실험 및 검사, 제3장 설계하중, 제4장 기초 구조, 제5장 콘크리트 구조, 제6장 조적식 구조, 제7장 강구조, 제8장 목구조 등 모두 8개장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제2장(구조실험 및 검사)은 건축물의 공사에 필요한 자재 및 기술에 대한 구조실험 및 검사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과거의 기준이나 규정 등에는 없었던 건설기술의 발달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내용이다. 자재 및 기술에 관한 실험 및 검사의 규정이 매우 미흡한 현실을 발전적인 체계로 지향하는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내용은 건축행정제도의 발전과 함께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설계하중)의 0306지진하중은 최근 대한건축학회에서 제정하고 공청회 등을 거친 신 내진기준을 따랐다.

이 건축구조기준의 제정으로 그간 분산 관리 운영되었던 각종 구조설계기준이 단행본으로 집약되어 각 구조설계 기준간 수평적 관계가 부각이 되어 분야간 비교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고 기준의 관리도 용이하게 되며 사용자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